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Job Stress and Fatigue of the Nurses in the Operating Room

정종희*, 강희영**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Chong-Hee Chung(nkoper@hanmail.net)*, Hee-Young Kang(moohykang@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와 C도에 소재한 2개 상급종합병원과 5개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124명이었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3.64(0.45)점, 피로 점수는 3.46(0.60)점이었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병원 종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 정도는 병원 종류, 근무배경,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는 업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0.47, p<.00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성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업무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수술실 간호사 | 업무스트레스 | 피로 |

Abstract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fatigue in operating room nurses.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124 operating room nurses who were working in operating rooms at two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five general hospitals in G city in the province of C,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level of job stress and fatigue were 3.64(0.45), and 3.46(0.60). In case of job stress in operating room nurses,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hospital type, and their fatigue levels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ypes of hospital, work motivation,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r=0.47, p<.001$) between operating room nurses' job stress and fatigue.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respect that i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fatigue in operating room nurses, and it will be used as the basis to develop job stress intervention program for operating room nurses.

■ keyword : | Operating Room Nurses | Job Stress | Fatigu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병원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1], 병원의 소비자인 환자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환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량과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2][3]. 또한 다른 의료직과의 역할 갈등, 병원 관리직과의 갈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및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으로 인해 간호사는 심한 업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의하면, 간호직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5],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4].

수술실 간호사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집도의 및 타 의료진과 협동체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수술준비, 마취 및 회복과정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근거로 간호를 수행하게 된다[6]. 또한, 수술에 필요한 기구의 적절한 활용, 멸균상태 유지, 수술기구를 안전하게 조작해야 하며, 수술기구의 고장이나 오염이 발생되면 수술시간의 연장과 수술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자를 감염 및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7]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최근 수술실은 수술 관련 기구 및 장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수술의 양상도 내시경이나 복강경, 일부 대형 병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로봇을 이용한 수술 등 수술실 간호사들은 고도의 첨단 장비의 취급 및 관리와 함께 다양한 의료진 및 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뤄 안전하면서도 질적인 치료 및 간호가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8].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들은 확대된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역할부담으로 지속적인 업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간호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으로도 연결이 된다[9].

피로와 스트레스는 강한 연관성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끼게 된다[2]. 피로는 신체적 정신적인 과로,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관적

인 느낌으로[10], 수술실 간호사는 다양한 수술기구를 민첩하게 다뤄야하고 멸균 공간에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특성으로 피로도가 높다[11]. 피로는 간호사 개인 뿐 아니라 조직에 영향을 주며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의료사고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12].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게 되면 간호사는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이직의 주요 동기가 된다[13]. 수술실 간호사의 이직은 재정적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사기 및 팀의 기능을 저하 시킨다[14].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병원간호사의 스트레스나 피로에 관한 연구[15-17],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18]이나 이직의도[19]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파악한다.
- 2)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시와 C도에 소재한 병원 중 2개 상급종합병원과 5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로 첫째, 소독 및 순환 간호사, 둘째,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129명을 편의 표집 하였고, 이 중 125부(97%)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미완성인 설문지를 제외한 124부(96%)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술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은선[20]의 연구를 근거로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5$, 중간효과크기 .30, 검정력(1- β) .9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표집수가 109명 이상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2개 상급종합병원과 5개 종합병원의 각 간호부서장과 수술실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은 후, 수술실 수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 진행 전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 작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작성에는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3.1 업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홍복화[21]가 개발한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김영옥[22]이 수정·보완한 10개 영역 66개 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 영역은 간호업무 관련 사항(13문항), 전문직 역할갈등(5문항),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6문항),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9문항), 의사와의 갈등(9문항), 의료관계 심리적 부담감(4문항), 간호사에

대한 대우(5문항),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5문항),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8문항), 물품부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옥[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6$ 이었다.

3.2 피로

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oshitake[23]가 개발하고 일본 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위원회가 표준화시킨 피로자각증상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 영역은 신체적 증상(10문항), 정신적 증상(10문항), 신경·감각적 증상(10문항)의 3개 영역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4$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29세 84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명(25.2%), 40세 이상 8명(6.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28.8세였다. 결혼 상태

는 미혼 83명(67.4%), 기혼 40명(32.6%)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88명(71.5%), 없는 대상자는 35명(28.5%)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업자 75명(70.0%), 대학교 졸업자 44명(35.7%)이었고, 병원종류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66명(53.2%), 종합병원 간호사 58명(46.8%)을 차지하였다. 수술실 경력은 5년 이하 71명(58.2%), 10년 이상 27명(22.1%), 6~9년 24명(19.7%) 순으로 평균 6.0년이였다. 수술실 근무배경은 본인 희망 63명(50.8%), 병원발령 58명(46.8%)이었으며, 근무형태는 낮 고정근무 65명(52.4%), 교대근무 59명(47.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75명(61.0%), 건강하다 29명(23.6%), 불건강하다 19명(15.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 차이 (N=124)

특성	구분	n(%)	업무스트레스		피로	
			M(SD)	F/t (p)	M(SD)	F/t (p) Scheffe
연령*	20~29세	84(68.3)	3.62(0.45)	1.44 (.240)	3.51(0.58)	0.61 (.540)
	30~39세	31(25.2)	3.62(0.45)		3.38(0.54)	
	40세 이상	8(6.5)	3.90(0.47)		3.37(0.99)	
	M(SD)	28.83(5.81)				
결혼 상태*	미혼	83(67.4)	3.66(0.47)	0.80 (.430)	3.49(0.59)	1.01 (.310)
	기혼	40(32.6)	3.59(0.42)		3.37(0.61)	
종교*	유	88(71.5)	3.66(0.46)	0.85 (.400)	3.48(0.62)	0.63 (.530)
	무	35(28.5)	3.58(0.44)		3.40(0.55)	
학력*	전문대졸	75(70.0)	3.67(0.43)	1.40 (.250)	3.50(0.61)	0.46 (.630)
	대학교졸	44(35.7)	3.56(0.49)		3.40(0.58)	
	대학원이상	4(3.3)	3.86(0.42)		3.59(0.58)	
이전 근무 병원*	상급종합병원	66(53.2)	3.71(0.43)	-2.06 (.040)	3.60(0.54)	-2.95 (.004)
	종합병원	58(46.8)	3.55(0.47)		3.29(0.63)	
수술실 경력*	5년 이하	71(58.2)	3.64(0.44)	0.36 (.700)	3.49(0.59)	0.38 (.690)
	6~9년	24(19.7)	3.57(0.46)		3.49(0.50)	
	10년 이상	27(22.1)	3.68(0.49)		3.38(0.70)	
	M(SD)	6.02(5.53)				
근무 배경	병원발령 ^a	58(46.8)	3.68(0.45)	0.40 (.670)	3.60(0.56)	3.22 (.040) a,b,c
	본인희망 ^b	63(50.8)	3.60(0.44)		3.34(0.62)	
	기타 ^c	3(2.4)	3.57(0.78)		3.20(0.62)	
근무 형태	낮 고정근무	65(52.4)	3.60(0.45)	-0.99 (.320)	3.44(0.58)	-0.36 (.720)
	교대근무	59(47.6)	3.68(0.46)		3.48(0.63)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다 ^a	29(23.6)	3.55(0.49)	0.88 (.420)	3.27(0.60)	5.32 (.010) a,c
	보통이다 ^b	75(61.0)	3.65(0.43)		3.44(0.59)	
	불건강하다 ^c	19(15.4)	3.73(0.47)		3.82(0.51)	

* 무응답

2.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64(0.45)점으

로 나타났다. 업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전문 지식 및 기술부족 3.90(0.49)점이었으며, 다음은 몰품부족 3.88(0.71)점, 의사와의 갈등 3.82(0.61)점, 간호업무 관련 사항 3.69(0.47)점, 의료한계 심리적 부담감 3.67(0.61)점, 전문직 역할갈등 3.54(0.60)점, 간호사에 대한 대우 3.52(0.67)점,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3.52(0.73)점,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3.50(0.70)점 순이었고,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3.44(0.60)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피로 점수는 평균 3.46(0.60)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증상이 3.91(0.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신경·감각적 증상 3.38(0.78)점, 정신적 증상 3.08(0.78)점 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 (N=124)

변수	M	SD
업무스트레스	3.64	0.45
간호업무 관련 사항	3.69	0.47
전문직 역할갈등	3.54	0.60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3.90	0.49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	3.44	0.60
의사와의 갈등	3.82	0.61
의료한계 심리적 부담감	3.67	0.61
간호사에 대한 대우	3.52	0.67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3.52	0.73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3.50	0.70
몰품부족	3.88	0.71
피로	3.46	0.60
신체적 증상	3.91	0.56
정신적 증상	3.08	0.78
신경감각적 증상	3.38	0.78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업무스트레스는 병원 종류(t=-2.06, p=.04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간호사보다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로 정도는 병원 종류(t=-2.95, p=.004), 근무배경(F=3.22, p=.040), 주관적 건강상태(F=5.32,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배경에서

는 병원발령 근무자가 본인 희망이나 기타 근무자보다 피로 정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불건강하다고 느낀 대상자가 건강하다고 느낀 대상자보다 피로 정도가 높았다[표 1].

4.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피로는 업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어($r=0.47, p<.001$), 간호사의 피로는 간호업무 관련 사항, 전문직 역할갈등,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갈등, 의료관계 심리적 부담감, 간호사에 대한 대우,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물품부족과 관련한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와의 상관관계 (N=124)

변수	피로	
	r	p
업무스트레스	0.47	<.001
간호업무 관련 사항	0.43	<.001
전문직 역할갈등	0.29	.001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0.22	.016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	0.38	<.001
의사와의 갈등	0.36	<.001
의료관계 심리적 부담감	0.35	.029
간호사에 대한 대우	0.20	.003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0.27	<.001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0.48	<.001
물품부족	0.43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평균 3.64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양희순[24]의 연구에서는 3.58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오명옥, 성미혜, 김양원[25]의 연구 2.79점과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정화, 김지화[26]의 연구결과 2.37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술실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부서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술실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의료진 및 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뤄야 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업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은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물품부족, 의사와의 갈등 순으로 업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영옥[22], 민성희[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장 높은 업무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도화된 첨단 장비의 사용에 따른 수술방법의 변화, 첨단 기계나 장비의 조작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에게 숙련도에 도달할 때까지 장비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물품부족은 각 과별 수술방법별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수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수술 일정이 바빠거나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소모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22].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전산 물품관리와 전산 체계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수술 시 집도의와 소독간호사가 함께 수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수술에 많이 참여한 소독간호사일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22]. 따라서 수술실내에서 의사와 간호사 상호간에 협력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자각하는 피로는 평균 3.46점으로 중간 이상이었고, 수술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은선[20]의 연구 3.10점,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채지혜[28]의 연구결과인 2.2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증상(3.91점)에 대한 피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경·감각적 증상(3.38점), 정신적 증상(3.08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동간호사[29]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신경·감각적 증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의 무거운 방사선 보호복의 착용, 무거운

수술 기구의 이동,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특성으로 다리와 허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신체적 피로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 후 설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수술 기구나 수술포를 보관하는 수납장 배치와 운반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 스스로 휴식, 영양, 수면을 잘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병원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보다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병원 종류, 근무배경,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희, 조수현[3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수술실에서의 첨단 장비의 조작과 관리, 새로운 수술방법 및 수술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가 피로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근무배경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술실에 근무하게 된 경우가 병원 발령에 의한 것보다 피로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애리[3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간호인력 배치 시 본인 희망여부의 반영이 요구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고 느낀 대상자가 피로 정도가 낮았는데 박안숙[11], 서정선[32], 이경미, 홍미순[3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특성상 육체적 직무 요구도가 크므로 체력을 고려하여 수술실에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피로는 업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업무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물품부족, 간호업무 관련 사항, 동료 등 대인관계상의 문제는 피로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34]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업무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도시와 일개 도에 소재한 2개 상급

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고, 각 병의원 규모별 비율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확대하거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는 중간 이상이었고, 피로는 업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성을 파악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니며, 향후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업무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종류에 따라서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를 비교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희, 현미열, 김숙영,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전략과 우울”, 한국직업간호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19-231, 2009.
- [2] 고유경, 강경화 “일반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집단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76-286, 2006.
- [3] 신미경, 강현임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8-167, 2011.
- [4] T. I. Gelsema, M. Van Der Doef, S. Maes, and Jansse “A Longitudinal Study of Job Stress in the Nursing Profession: causes and

- Consequenc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14, No.2, pp.289-299, 2006.
- [5] 윤현숙,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6] 박광옥, 김명숙, 유은정, 이향우, 이숙자 *수술간호의 실제*, 현문사, 2008.
- [7] 황옥남, 김영희 *수술실기구*, 현문사, 2009.
- [8] 윤계숙, 박성애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임상간호연구*, 제15권, 제1호, pp.93-106, 2009.
- [9] 염영희, 고명숙, 김기경, 김태숙 민순, 박종선, 신미자, 이미애, 정민, 황지인 *간호관리학*, 수문사, 2009.
- [10] L. M. Barker, *Measuring and Modeling the Effects of Fatigue on Performance: Specific Application to the Nursing Profess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2009.
- [11] 박안숙, 손미경, 조영채 “대학병원 병동 및 수술실 근무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관련된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781-1791, 2013.
- [12] L. M. Barker and M. A. Nussbaum, “Fatigue Performance and the Work Environment: a Survey of Registered Nurses,” *J of Advanced Nursing*, Vol.67, No.6, pp.1370-1332, 2011.
- [13] 허미영,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성격유형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B. Coomber and K. Louise Barriball, “Impact of Job Satisfaction Components on Intent to Leave and Turnover for Hospital Based Nurses: A Review of the Reach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4, No.2, pp.297-314, 2007.
- [15] 김순영, 권인선, 조영채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수준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759-1768, 2012.
- [16] 박은아, 박정연 “신생아실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도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61-269, 2011.
- [17] 김재란, 서순림, 신지원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4권, 제4호, pp.63-70, 2009.
- [18] 김연자,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0.
- [19] 배현정,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0] 이은선, *수술실간호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1] 홍복화, 강복수, 김석범,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2-71, 1996.
- [22] 김영옥,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3] H. Yoshitake, “Relations between the Symptoms and the Feelings of Fatigue,” *Ergonomics*, Vol.14, pp.175-186, 1971.
- [24] 양희순,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오명옥, 성미혜, 김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 및 몰입”, *임상간호연구*, 제17권, 제2호, pp.215-227, 2011.
- [26] 이정화, 김지화,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00-408, 2012.
- [27] 민성희,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8] 채지혜,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가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9] 권수현,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0] 김영희, 조수현, “광주전남지역 병원간호사의 피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71-284, 2002.
- [31] 한애리,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2] 서정선,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영향”, *수술간호*, pp.105-160, 2008.
- [33] 이경미, 홍미순,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및 분노간의 관계”, *간호과학논집*, 제8권, 제1호, pp.87-103, 2003.
- [34] 박인혜, 김정선, 박미경, 이은숙, 정향인, 한유정, *간호연구방법론*, 고문사, 2008.

강희영(Hee-Young Kang)

정회원



- 198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3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2009년 ~ 2012년 : 세계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호스피스, 사별 간호

저자 소개

정종희(Chong-Hee Chung)

정회원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협동과정(보건학 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중)
 - 1984년 12월 ~ 2009년 5월 : 남광병원 수간호사
 - 2012년 3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성인간호, 스트레스